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7월 28일)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예수재' 문화재 지정 차별된 가치 부각을

생전예수재 문화재 지정 어떻게 진행되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영산재(靈山齋, 국가무형문화재 50호), 수륙재(水陸齋, 국가무형문화재 125·126·127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의례인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무형문화재로 보존 전승하는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앞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수륙재, 영산재와 달리 생전예수재가 지닌 차별화된 의미를 보다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올해 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계획으로 충북도에서 신청한 단양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종목지정 조사 방침을 밝힌데 이어 6월 생전예수재 종목지정방식 및 관리방안 조사에 대한 용역조사 시행을 공고했다.

현재 불교 의례 중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영산재, 수륙재, 불복장 작법이다. 영산재는 태고종 봉원사가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를 통해, 수륙재는 조계종 진관사가 진관사수륙재보존회, 삼화사가 삼화사수륙재보존회를 구성해 보존 전승하고 있다. 생전예수재는 말 그대로 '생전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 의식으로 죽은 뒤에 실천할 불사를 살아 있을 때 미리 닦아 사후 명복을 빌기 위한 불교의식이다.

2015년부터 추진 움직임, 지정 가시화

무형문화재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심사와 토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생전예수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다. 영산재 뒤풀이 의식인 삼회향놀이의 충북무형문화재 등재를 2012년 마무리한 천태종 구인사는 범음범패연구보존회를 구성, 수륙재 무형문화재 등재 이후 생전예수재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등재 추진을 본격화했다. 범음범패연구보존회는 2018년 6월 구인사에서 충북도 문화재심사위원을 초청 생전예수재 시연회를 연데 이어 올해는 8월 20일 입재, 27일까지 시연을 진행했다.

구인사 인덕 스님은 "본 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리허설 단계로 보면 된다. 지난해 설행된 행사서 보완사항이 제기돼 올해 대거 보완했다"고 밝혔다.

천태종과 함께 조계종과 태고종에서도 생전예수재 등재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서울 봉은사를 중심으로 현재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설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다.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 생전예수재 설행 기록이 있는 봉은사는 2016년 생전예수재보존회를 구성한 이후 올해 1월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까지 이끌었다. 2018년 8월 종목지정을 앞두고 대규모 생전예수재를 설행한데 이어 올해도 8월 19일 입재, 49일간 생전예수재를 설행한다.

태고종 양주 청련사의 경우 올해 1월 생전예수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런 움직임에 문화재청은 6월 종목지정방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영산재와 같이 단일화된 종목지정, 혹은 수륙재와 같이 개별화된 종목지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지정방식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종목, 종파별 특징이 있어 모든 방법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불교의례 가치 재인식 기회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생전예수재는 영산재, 수륙재와 달리 본인 및 가족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지내는 재라는 특징이 있다. 시왕신앙이 중심신앙으로 사후 심판에 대한 부분이 주된 내용"이라며

봉은사·구인사·청련사 등
문화재 지정 움직임 '활발'
문화재청 지정방식 용역 중
지자체 설행기관 지정 목전

권선징악 통함 참회 의미
"불교의례 사회적 가치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자"

"기복이 아닌 자기 성찰의 의미로 생전예수재를 통해 사회적으로 권선징악적 가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오늘날 생전예수재의 설행에서 이 같은 다른 의식과 달리 성찰과 참회, 권선징악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도 "사회공동체의식 함양이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수륙재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륙재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의식이 높은 가치를 지녔음에도 문화재 지정이 늦은 것은 불교 안팎에서의 의례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형문화재 지정은 불교 내부적으로 불교의례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다시금 높이고 새롭게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생전예수재 설행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한 수행의 일환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부처님 생애 뮤지컬로 본다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한 '뮤지컬 싯다르타'가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제작사인 ㈜엠에스엠시는 8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작발표회를 개최하고 주요 넘버와 배우, 스태프들을 소개했다. 사진은 출연배우들이 주요 넘버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박재완 기자

중앙신도회 해외구호에 박차

한국자비공덕회와 네팔 행복자전거 프로젝트 전개

11월 30일까지 800만원 모연
100대 네팔 칸첸중가로 전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이 자전거를 유일한 통학수단으로 사용 중인 네팔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보낸다.

날마다좋은날은 11월 30일까지 네팔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행복자전거 100대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 800만원 모연에 나선다.

날마다좋은날은 2018년 엄홍길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파쁠루(치왕 장추구리 굼바) 동자승 기숙사 건립을 진행한 바 있다.

네팔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구호로는 처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자비공덕회(대표 지상)와 함께 진행한다. 행복자전거 100대가 보내지는 네팔 칸첸중가 지역은 인도와의 접경지역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다. 이 지역 청소년들은 사실상 통학수단으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날마다좋은날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국자비공덕회는 지상 스님과 故명조 스님이 설립한 단체다. 당시 심장병을 앓던 故명조 스님은 "내 몸만 보전하는 게 송구스럽다. 남을 위해 귀한 시주금 쓰고 싶다"며, 매월 1회 수유동 향운사에서 기도법회를 조직하고 소액의 기부금을 모아 네팔 돕기를 시작했다. 자비공덕회는 2010년부터 네팔 칸첸중가에서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컴퓨터 및 칠판 등 교육자재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복자전거 프로젝트는 2017년 10월 처음으로 실시했다.

날마다좋은날 관계자는 "미얀마와 라오스 등지에서 국제구호를 진행한데 이어 네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오는 연말까지 자전거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비공덕회 대표 지상 스님은 "우리가 심은 자비의 씨앗이 비록 작지만 네팔 아동들에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큰 자산이 된다"며 "작은 자비심이 전해져 아이들의 심신까지 건강하게 하고, 밝은 세상으로 이끌자"고 당부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진각종, 종단발전협의회 10인 구성

스승·신교도 5인씩… 협의회장엔 덕운 정사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이 종단 스승과 신교도를 중심으로 종단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종단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 진각종 총금강회(회장 익정)가 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스승과 신교도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8월 19일 진각문화전승원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종단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협의회에는 스승 측에서 통리원 기획실장 덕운 정사, 포항교구청장 효명 정사, 종의회의원 법운 정사, 총무국장 선덕 정사, 기획국장 원영 정사가 참여한다. 신교도 측에서는 상륜심인당 정명(배도순), 능인심인당 이정(허협), 보원심인당 청명(이헌환), 대원심인당 정현(이덕기) 각자와 실상심인당 지법명(이미향) 보살이 참여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협의회장으로는 기획실장 덕운 정사가 선출됐다.

종단발전협의회는 회의에 앞서 총인 경정 정사와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차례로 예방하고, 종단의 미래비전과 제도적 개선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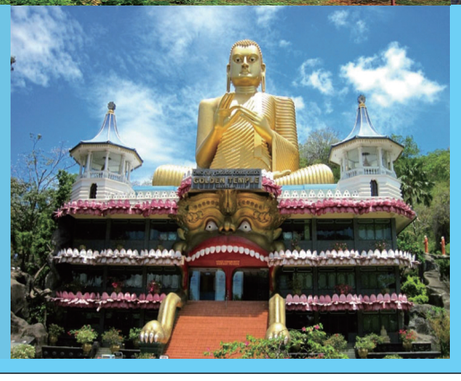
20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YESGOOD.CO.LTD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 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933호



천불천탑 미소의 나라
미얀마




8대 성지순례
인도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
-라즈기르-바이샬리
-쿠시나가르-룸비니
-쉬라바스티-상카시아



남방불교의 핵심
스리랑카
콜롬보-아누라다푸라
-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
-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
-콜롬보



4대 성지
중국
아미산 오대산
구화산 보타산